

남자 간호학생의 임상 실습 스트레스와 대처 경험

주세진¹ · 최정현¹ · 김춘미² · 오두남³ · 박명숙⁴

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¹, 선문대학교 간호학과², 호서대학교 간호학과³, 건국대학교 간호학과⁴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Coping Experience of Men in Nursing as a Student

Ju, Sejin¹ · Choi, Jung Hyun² · Kim, Chunmi² · Oh, Doo Nam³ · Park, Myung Sook⁴

¹Department of Nursing, Namseoul University, Cheonan

²Department of Nursing, Sunmoon University, Asan

³Department of Nursing, Hoseo University, Asan

⁴Department of Nursing,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stress coping experience of men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Methods:** In-depth interview were done using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with 25 me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practice. Data were analyzed using grounded theory. **Results:** Core category of coping experience of these nursing students was 'a rolling stone'. Students' coping strategies were 'women centered environment', 'physical difficulty', 'lack of sufficient role models', and 'age related'. Helping components for their coping behaviors were 'individual characteristics', 'attitude to men nursing student', 'one's vision of nursing', and 'gender equality in nursing culture'. The consequence of this phenomenon were 'a sense of belonging', 'building gender free nursing identity', 'nursing pride acquisition' and 'dream of nursing expert'. **Conclusion:** Men nursing students emphasized 'growing as a mature nursing student' in clinical practice.

Key Words: Men; Students, Nursing; Adaptation, psych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생들은 실제적인 임상 실습을 통해 간호 관련 지식, 기술, 태도를 학습하고 있으며 간호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1,2]. 간호학과 4년 동안 1,000시간 이상의 임상 실습교육을 받아야 하는 간호 학생들은 학교여건과 전공과목에 따라 매년 낮은 환경

에 노출되며, 원거리 실습과 과제 부담감 등과 같은 물리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최근 환자권리를 주장하는 간호대상자의 거부로 임상 실습경험의 기회마저도 제한되는 등의 어려움이 직면하면서 임상 실습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이다[3].

한편 그 동안 여학생이 주류를 이루어 온 간호학과에 남학생들이 증가하면서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현대적 간호가 구축되면서 간호를 여성적 관점으로 보게 하는 문화를 형성하였고 이는 그 동안 젊고 우수한 여성들이 간호로 진입하는데 기여

주요어: 남자, 간호학생, 심리적 적응, 질적 연구

Corresponding author: Ju, Sejin <https://orcid.org/0000-0002-3925-4273>

Department of Nursing, Namseoul University, 91 Daehakro, Seonghwan-eup, Seobuk-gu, Cheonan 31020, Korea.

Tel: +82-41-580-2714, Fax: +82-41-580-2931, E-mail: lovepdd@nsu.ac.kr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7R1D1A1B03028538).

Received: Feb 21, 2018 | Revised: May 14, 2018 | Accepted: Jun 11, 2018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하였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바탕으로 인해 간호는 여성의 일이라는 사회 통념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4]. 그러나 보건 의료 환경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간호 인력으로 남자간호사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남성을 간호직에 확보하는 것은 간호의 전문직업적 위치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4].

이러한 세계적 인식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1962년 처음으로 남자 간호사 면허가 허용된 이래, 그 동안 매년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남자간호사의 수가 2010년 642명(전체의 5.4%) 이었고 2012년에는 7.5%, 2015년 8.7%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5]. 2017년에는 2,134명(10.9%)으로 처음으로 2,000명을 돌파하였으며 동시에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남자 간호학생의 수 또한 예전과 비교해 증가하고 있다[5]. 그러나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남학생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과 함께 적응에 성공하는 학생이 있지만 중도 포기하거나 졸업하여 간호사가 되어도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간호를 떠나게 되는 현상도 속출하고 있다[4]. 이처럼 취업에 대한 기회나 전문직 관심 등 확실한 동기를 가지고 간호학을 선택한 남학생들일지라도 학교생활과 임상 실습에 있어 적응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을 뿐 아니라[6,7], 간호 실무에서는 여전히 여성 중심의 분위기가 팽배하며[8], 정보와 지지의 부족, 남자 교수나 선배와 같은 역할 모델의 부족, 불평등한 실습 기회[2,4], 남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하거나 이방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긴장과 불안 등 여자간호학생과는 차별화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선행연구에서 남자 간호학생들은 임상 실습을 하면서 간호사가 되기에는 남성이라는 성 자체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정체감 혼란 경험을 겪고 있고 주변 환경으로부터 상처받은 경험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이 보고되었다[10]. 국내에서 이루어진 남자 간호학생의 임상 실습과 관련된 연구들의 관심은 주로 임상 실습 경험에 대한 연구[4,5,11]였고, 또한 외국의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과도한 임상 실습 요구, 현장 간호사의 부정적인 태도, 남자 간호사를 거부하는 여성 환자 등으로 인해 남자 간호학생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밝힌 바 있다[12].

그러나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습 교육을 받는 동안 어떠한 스트레스에 직면하고 이를 어떻게 헤쳐 나가는지에 대한 대처경험을 다룬 연구들은 아직 부족하여 이러한 연구결과를 다양한 대상의 남자 간호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질적 연구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연구의 특성상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지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연구대상자의 수가 작고, 학년, 임상 실습 경험정도, 임상 실습기관 등의 교육

환경에도 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대상자의 폭을 넓혀서 연구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남자 간호학생들의 임상 실습경험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였고 질적 연구 중 인간행위의 상호작용의 본질을 파악하고 개념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였다[13]. 이에 본 연구에서 목적하는 대로 남자 간호학생들이 임상 실습교육을 받는 동안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타인들의 반응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조절하고 구조화하는지를 탐구함으로써[11] 남자 간호학생들의 특수한 경험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분석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여성이 다수인 조직과 문화 속에서 남자 간호학생들이 간호학 교과과정에 잘 적응하여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남자 간호학생들의 임상 실습 역량과 적응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지식체로 활용될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남자 간호학생들이 임상 실습과정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 남자 간호학생들이 임상 실습교육을 받으면서 직면하는 스트레스를 파악한다.
- 남자 간호학생들이 시도한 대처 경험과 그 결과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자 간호학생들의 임상 실습 스트레스와 대처 경험을 탐색하기 위하여 근거이론 분석 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참여자

근거이론에서의 표본추출은 사람 그 자체가 아닌 사건이나 경험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으로부터 오는 편견을 방지하며, 연구의 타당도를 확립하기 위해 학교, 학년, 임상 실습경험 정도를 고려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연구참여자

가 포함될 수 있도록 목적적 표본추출(purposive theoretical sampling)을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일개 지역 소재 4년제 5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 중 임상 실습을 경험한 3학년과 4학년으로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심층 면접에 동의한 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자료수집과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실시하였다. 자료수집과정에서 본 연구는 참여자들이 연구자들의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먼저 연구자 소속 대학 생명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1041479-201702-HR-XXX)을 받은 후 연구를 시작하였다. 참여자들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진행 과정, 자료수집방법과 녹취, 면담내용의 비밀유지와 불이익의 사항이 전혀 없음과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 및 중도철회 가능 등을 설명하였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서면 동의한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핵심 연구 질문은 “참여자들은 임상 실습교육을 받는 동안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면담질문으로는 임상 실습경험에 대한 느낌, 임상 실습에서의 스트레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 노력, 그리고 대처 결과 등을 포함하였다. 면담은 연구자별로 개인 또는 소그룹을 대상으로 질적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용한 공간에서 1~2회 정도 이뤄졌으며,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분석을 위하여 녹음한 면담내용은 필사하였으며, 자료의 누락이나 오기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가 필사된 내용과 녹음된 원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수정하였다.

4. 자료분석

근거이론 분석 연구방법론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개념화시켜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합하는 과정을 코딩이라고 하며 이는 자료로부터 이론이 정립되는 핵심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코딩작업을 거치면서 계속된 비교분석을 하며 면담 자료를 분석하였다. 즉, 면담 자료들을 분해하고, 개별적인 요소로 분리하며, 자세히 검토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줄 단위 분석을 하였다. 코딩 첫 단계인 개방 코딩을 위해 일차적으로 연구자들은 각자 자신의 필사 자료를 자세히 읽으며 유사한 항목끼리 분류한 후 이름을 붙였다. 연구자 미팅을 통해 각 연구자가 개념화한 항목의 이름을 열거하고 전체 자료

를 함께 분류하는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연결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개념은 연구자들이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현상에 이름을 붙여 개념화한 후 통합하는 범주화 과정을 거쳤고 개방 코딩의 구체화 및 차원화 과정을 통해 현상의 양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다음 단계인 축 코딩에서 범주와 하위범주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다. 축 코딩 과정에서 만들어진 설명적 도식은 Corbin과 Strauss [13]가 제시한 분석틀인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주제를 정교화하면서 중심 범주를 결정하기 위하여 선택 코딩을 실시하였다.

5. 연구자 준비와 연구의 엄밀성 확보를 위한 노력

1) 연구자 준비

질적 연구 수행을 위한 도구로서 연구자들은 모두 박사학위 과정 중 질적 연구방법론 교과목을 수강하였고, 질적 연구방법론 관련 국내 및 국제 학회 및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또한, 박사학위논문뿐만 아니라 다수의 질적 연구를 수행해 온 경력을 갖추고 있다. 공동연구자들은 모두 간호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로서 전공별로 임상 실습을 지도해오고 있으면서 학생들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면담을 수행하고 있고, 임상 실습교육 및 실습현장에 대한 민감성과 오리엔테이션을 갖추고 있다.

2) 연구의 엄밀성 확보를 위한 노력

자료의 엄밀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면담과정에서 교수인 연구자로 인한 반응이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11]. 면담자료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가능한 여러 번 만나면서 신뢰와 친밀감이 형성되어 참여자가 솔직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비한 자료 확인을 위해서 문자메시지와 전화면담도 후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심층 면담을 차례로 시행한 결과 더 이상 추가적인 자료수집이 필요하지 않아 자료가 포화되었다고 판단하여 25명의 연구참여자로 면담을 종료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결과로 도출된 내용을 2명의 간호학과 남자 간호학생들로부터 확인받는 작업을 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 25명은 3학년 6명, 4학년 19명이었다. 참여자들의 임상 실습 대처경험 자료분석 결과, 6개의 범주, 18개의 하위범주, 52개의 관련 개념들이 도출되었다. 패러다임 모형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조건, 작용·상호작용, 그리고 결과이다. 조건은 구조 혹은 환경이나 상황세트를 구성하게 되는데, 여기에 현상이 내재되어 있다. 조건은 그 특성에 따라 인과적, 맥락적, 중재적 조건으로 구분하였다(Table 1, Figure 1).

1.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 성의 차이에 대한 부적응

패러다임 모형에서 인과적 조건은 현상을 일으키거나 발전시키는 사건들로 구성된 원인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남학생들이 ‘굴러온 돌’이라는 중심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인과적 조건은 ‘성의 차이에 대한 부적응’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인과적 조건의 범주에 해당하는 하위범주는 크게 ‘성에 대한 편견’과 ‘여성 집단문화’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들에 속하는 구체적 개념은 첫째, 참여자들은 근본적으로 성(gender)이라는 관점에서 성역할에 대한 편견을 느끼고, 소수자로서의 차별과 불평

등한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주도의 집단 문화 속에서 이질감, 소외감, 집단갈등 속에서 안절부절못함을 겪었다.

실습할 때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로부터 기왕이면 남자가 의사 되지 왜 간호사하려고 하느냐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참여자 19)

간호사는 여자가 하는 일인데 괜찮으냐고 묻는 분들도 있고, 고등학교 친구들이 만나면 장간, 장간하며(last name이 장씨) 놀리기도 하는데 화를 내지도 못하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참여자 12)

대부분 기가 센 여자로 구성된 집단이고 말 한마디를 해도 진짜 톡 쏘아붙이고 사람을 꿈쩍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패거리 형성하여 끼리끼리 뭉쳐 서로 싸울 때 저는 양쪽 눈치를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곤란할 때가 많아요.(참여자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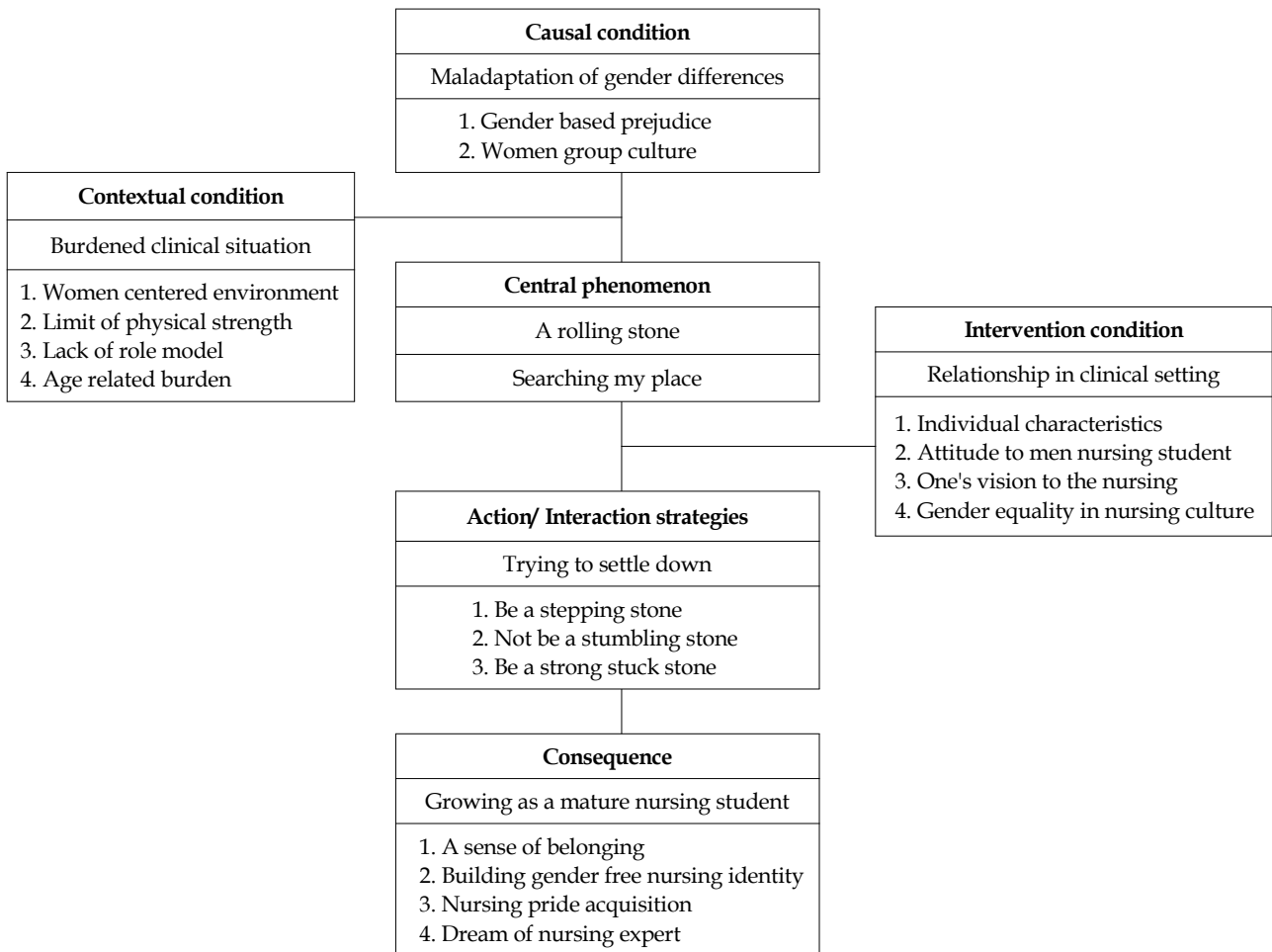


Figure 1. The paradigm model of coping experience of men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Table 1. Concepts, Subcategories, Categories, and Composition of Paradigm Related to Coping Experience in Clinical Practice of Men Nursing Students

Concepts	Subcategories	Categories	Composition of paradigm
Prejudice of gender roles Feeling of a discrimination Felt unequal opportunities	Gender based prejudice	Maladaptation of gender differences	Causal condition
Feeling of heterogeneity Feeling social isolation Restlessness among group conflicts	Women group culture		
Feeling no place for me Feeling uncomfortable Captivated by the thought of leaving	Searching my place	A rolling stone	Central phenomenon
Majority of staff is women Women oriented facilities Refuse to receive care	Women centered environment	Burdened clinical situation	Contextual condition
Physical burden irrelevant to clinical practice Doing a nasty job	Limit of physical strength		
Lack of guidance from staff Lack of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aff A feeling of being an idiot	Lack of role model		
Attention deficiency Economic dependence	Age related burden		
Engaged in self-study Empowering basic nursing skills Active involvement in clinical setting Therapeutic use of self	Be a stepping stone	Trying to settle down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Do my best Doing the struggle job Take the initiative Act quickly and sensitively at any clinical situation Show favorable attitude as a nursing personnel	Not be a stumbling stone		
Stick to oneself Exchange information between men nursing students Relaxing with fun activities Building close relationship	Be a strong stuck stone		
Individual personality Depend on the motivati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Relationship in clinical setting	Intervention condition
Encouraging and support from clinical staff Positive attitude for the men nursing student	Attitude to men nursing student		
Thinking about the dignity of life Understanding nursing spirit	One's vision to the nursing		
Learn to cooperate with in both gender nursing staff Building for trust of the gender free nursing staff	Gender equality in nursing culture		
My ward Friendship Requiring person	A sense of belonging	Growing as a mature nursing student	Consequence
Acquisition of genderless nursing professionalism Assertive nursing Formation of nursing spirit for calling	Building gender free nursing identity		
Improvement academic competence Promoting nursing skills Pride in nursing profession	Nursing pride acquisition		
Person who have a passion of nursing Person who have a new vision of nursing Person who have a professionalism in nursing	Dream of nursing expert		

여자들의 조직에 이물질로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오히려 임상 실습을 나오며 서너 명씩 팀으로 다니다 보니 더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참여자 5)

2. 중심현상(central phenomenon) - 굴러온 돌

중심현상이란 상황 유발 또는 조절사건들에 내재되어 있으면서 작용·상호작용에 의해 다루어지고 조절되거나 관계되는 중심생각이나 사건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남자 간호학생의 임상 스트레스와 대처경험을 나타내는 중심현상은 ‘굴러온 돌’이었으며, 일련의 작용·상호작용 전략들이 모두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중심현상의 하위범주로 ‘자리 찾기’가 도출되었고 관련 개념은 ‘내 자리가 아닌 느낌, 불편한 느낌, 떠날 생각’이라는 관련 개념이 도출되었다.

난 분명 있는 데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그런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없는 사람처럼 아홉 시간 반씩 있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참여자 24)

간호사 선생님들은 항상 바쁘게 뛰어 다니는데 가만히 서서 지켜봐야만 하는 내가 ‘돌뿌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참여자 12)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과일바구니가 두 개 있으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큰 수박 하나를 놓은 느낌인데, 여자들은 과일바구니에 포도알맹이만 가득 차 있는 느낌이 들어요. 여학생들은 다 제 각각인 느낌이 들고, 개개인으로 보면 착한데 자기 이익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배려가 없고 자기 이익을 챙긴 후에 남는 걸 배려하니까 남자들하고는 정말 다르죠.(참여자 2)

3.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 - 버거운 임상 현장

어떤 현상에 속하는 특정한 속성으로 현상에 속하는 사건들의 위치를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굴러온 돌’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혹은 상황적 맥락은 ‘버거운 임상 현장’이었고 여기에 ‘여성 중심환경’, ‘체력의 고갈’, ‘롤모델의 부족’, ‘나이에 대한 부담감’의 네 가지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여성 중심 환경’은 대부분 여성인 간호사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지 걱정하며 눈치껏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실습 기

관 대부분이 탈의실이나 휴게실 등 여성을 위한 시설은 잘 준비된 편이나 남자를 위한 시설이 따로 없어 화장실이나 한쪽 구석의 공간에서 주위 살피며 환복할 때는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였다.

젊은 여성 환자들은 제가 다가가는 것을 꺼려하고 아예 커튼을 닫아놓아 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참여자 24)

남자간호사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습복을 배식실이나 화장실에 갈아입거나 당직 선생님이 쉬시는 곳에서 갈아입어요.(참여자 21)

두 번째, 그래도 신체적으로는 자신 있으니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였으나 온종일 긴장하고 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지쳐가며 ‘체력의 고갈’을 느꼈다. 허드렛일을 시킬 때는 일이 하기 싫어서라기보다 일꾼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자괴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너무 힘들어서 30분에 한 번씩 화장실 가서 앉아 있기도 하고.(참여자 1)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쓰레기를 많이 주웠습니다. 다리를 굽히고 싶어서.(참여자 4)

실습하면서 저 자신의 위치와 했던 일들을 생각해보니 스스로를 마치 ‘일개미’ 같다고 느꼈습니다.(참여자 10)

세 번째, ‘롤모델의 부족’은 임상 현장에서 남자 간호사를 만나기 어렵고, 특히 수간호사 급의 관리자를 볼 수 없어 실습을 하면서도 남자로서 간호사가 된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게 하였고 간호 전문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성 차별적으로 해석하는 등 전문성이 부족한 간호사를 만났을 때 매우 혼란스러웠다. 또한 남자간호학생의 방문을 거부하거나 비협조로 입장이 난처할 때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반응하는 게 좋을지 보여주기보다 욕박지르거나 야단치는 식의 간호사 행동으로 바보가 된 느낌이 들기도 하였다.

(간호사로부터 들은 말) 너 같으면 여자가 남자 앞에서 엉덩이 까겠냐? 야당장 내가 너한테 엉덩이 까고 근육 주사 맞으라고 해도 못 맞겠다.(참여자 12)

오랫동안 일하기 위해서는 승진을 하면서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간호사가 여자 중심 직업이기 때문에 최고 관리자급의 남자 간호사 롤모델을 보지 못

했거든요. 또한, 간호사가 이직률이 높다는 부분에서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남자는 집안의 가장으로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참여자 23)

네 번째, ‘나이에 대한 부담감’은 대부분 대학교 1학년이 끝나면 군대를 가게 되고, 군 제대 후 학기가 맞지 않아 수개월 후 복학하자마자 암기해야 할 것이 많은 전공과목들로 주의집중이 어려워 적응하기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원거리 실습지인 경우 숙소나 식사 해결 등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경우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비용 이외 돈을 더 요청하는 것에 대한 고충을 말하였다. 재수나 삼수를 하지 않고 바로 대학에 진학한 남학생 그리고 아직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등 나이가 어린 경우는 그리 마음의 부담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 진학이 늦어졌거나 군대를 다녀와 다시 복학한 남학생 등 학년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는 부모에게 매달 일정하게 받는 비용 외 추가 돈이 더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곤혹스럽다고 하였다.

매일 매일 외워야 하는 것이 폭탄처럼 떨어져 맨붕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많아요.(참여자 6)

원거리 실습지인 경우 병원과 가까운 곳에 모텔이나 숙소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면 매달 집에서 받는 돈 외 추가 비용이 들어요.(참여자 6)

군대 가기 전에는 부모님께 용돈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군대 갔다 복학한 후에는 학기마다 내야 하는 등록금, 기숙사비도 그렇고... 매달 용돈 어휴,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실습한다고 다시 숙소를 구해야 하고, 교통비 들고... 모두 돈이죠... 말씀드리기 너무 힘들어요.(참여자 5)

4. 작용 및 상호작용(action/interaction strategies) -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기

작용 및 상호작용은 중심현상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나 상황을 조절해 나가는 전략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임상 실습현장에서 작용 및 상호작용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하였고 ‘디딤돌 되기’, ‘걸림돌 되지 않기’, ‘굳건히 박힌 돌 되기’라는 세 범주의 대처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갔다.

첫 번째, ‘디딤돌 되기’는 주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

해 노력하는 과정을 말한다. 관련 개념으로 ‘자율학습에 열중하기, 기본 간호기술 증진하기, 임상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치료적 자기 사용하기’의 네 가지 관련개념이 도출되었다. 간호 인계 시간에 알아듣지 못한 것을 친구들과 공유하며 매일 찾아 공부하였고, 환자 기록에 나온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 메모하여 외우기도 하였다. 매 간호술 적용 전 철저히 손씻기를 하거나 각종 튜브 교환에서 시행되는 간호기술의 중요성, 투약 실수나 수혈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확인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기본간호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실습 동료들과 역할극처럼 서로 연습해 보기도 하였다. ‘임상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서 남자 간호학생들은 그 동안 여자 간호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 방관적이었던 태도를 지양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모든 임상 상황에 개입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남자 간호학생들끼리 따로 만나 정보를 교류하고, 경험담을 나누는 등 자조 그룹을 형성하였다. 무엇보다 대부분 의무병군 복무 경험이 임상 실습에 도움이 되었고 실제 이론과 접목하여 실무현상을 연결해 보면서 간호 업무에 자신감이 생겼다. 학생들은 간호 업무를 관찰하며 간호 술기 중 최상의 간호를 위해 ‘치료적 자기 사용하기’가 필요함을 깨달았고 특히, 질병 상태에서 힘들어하는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해 치료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시뮬레이션에서 익힌 공감 형성하기, 무조건적 긍정, 적극적 경청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제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시면 죄책감을 느꼈어요. 내가 아직도 이걸 모르는구나, 공부할 게 많구나... 그래서 실습이 끝나면 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라도 찾아보게 되었고 새로운 것을 알고 나니 뿌듯해졌어요.(참여자 22)

좀 강박적이 되었다고 할까요. 무엇을 하든 손을 씻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좀 건성 건성이었거든요. 더 철저히해진 거지요.(참여자 23)

학교에서 치료적 의사소통을 배울 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정말 병원에 와보니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어요. 너무 힘들어 만나는 것조차 거부할 때도 예전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말없이 옆에 앉아 있다 필요한 것을 도와드려요. 진심에서 우러난다고 할까요...(참여자 20)

두 번째, ‘걸림돌 되지 않기’는 미숙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인정받기 위해 ‘최선 다하기, 일 찾아서 하기, 술선수범하기, 눈치 빠르게 행동하기, 간호인으로서의 태도’이다. 학생들

은 대상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면 바로 간호직원에게 알려 해결하는 등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도움이 필요한 일, 혹은 자신이 할 일이 없느냐고 적극적으로 묻는 등 필요 없는 존재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할 거 없으면 계속 돌거든요. 계속 돌면서 수액 다 들어간 거 있는지 빠진 거 있는지 확인하고, 사람들 살피고 그러다가 애깃거리 만들게 되면 애기 꺼내서 친해지고 그러려고 계속 돌아요.(참여자 20)

병동에서 아무래도 우리 남학생들은 눈에 띄는 편이라 실습 나가면 몸을 더 움직이는 편이에요.(참여자 1)

세 번째, ‘굳건히 박힌 돌 되기’는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확신으로 자신이 매우 유용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개념은 ‘자신에게 충실하기, 남자 간호학생들끼리 정보 교류하기, 즐거운 활동으로 이완하기, 진정한 관계형성하기’의 네 가지이다. 자신에게 충실하기는 실습으로 늘 바쁘기도 하고, 실습 과제도 많은 데다 신체적으로 너무 피곤하여 친구들과 만날 수 없게 됨에 따라 혼자 남는 것이 아닌가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쌓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길이 있고, 미래를 위해 현재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간을 통해 진정한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에 책을 읽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등 내적으로 충실해지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등 앞으로 남자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임상 실습과정 중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앞으로 동역자가 될 친구들과의 관계에 더 신경 쓰고 함께 진지한 얘기를 나누며 고민하는 등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굳건히 박힌 돌이 되고자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항상 제가 좋아하는 취미인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였고 또는 책을 접하게 되어 매일 같이 자기 전 15분씩 독서를 통해 즐거움을 느낌으로써 스트레스 해소를 하였습니다.(참여자 4)

스트레스가 많이 올 때는 잠을 자거나 같은 실습생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참여자 5)

남자 동기들을 만나 실습 노하우를 전수받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다음 턱으로 실습 오는 남자 학생이 있으면 알려 주구요. 저희들끼리 살아남는 법이지요.(참

자 23)

기숙사에 있는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을 하면 몸뿐만 아니라 정신도 건강해져서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참여자 16)

5. 중재적 조건(intervention condition) - 간호 현장의 인간관계

중재적 조건인 ‘간호 현장의 인간관계’의 네 가지 하위범주는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기’라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조건으로 본 연구에서는 하위범주로 ‘개인의 성향’, ‘남자 간호학생에 대한 태도’, ‘간호에 대한 비전’, ‘성 평등 간호문화’라는 네 가지 중재적 조건이 도출되었다. 첫째, 남자 간호학생들은 여자들 집단 속에서 적응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 즉, 동료 간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촉진할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는 개인적인 성격, 동기유발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둘째, 임상 실습 중 남자 간호학생은 현장에서 느끼는 역동, 즉, 따뜻하고 허용적 분위기인 경우 군대에서 느꼈던 전우애를 다시 경험하여 간호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기도 하지만, 차갑거나 냉소적인 분위기에서는 눈치를 보며 자신감이 떨어지고 간호학과에 온 것을 후회하였다. 결국, 임상현장에서 남자 간호학생을 대하는 분위기에 따라 작용·상호작용 전략이 촉진되기도, 억제되기도 하였다. 셋째, 현장에서 만난 선배들이 간호를 통해 성숙하고 멋져 보일 경우 간호에 대해 신뢰하고 비전을 키울 수 있지만, 주도적 간호를 경험하기 어려운 경우 간호에 대해 비판적, 비관적 태도를 갖게 되었다. 넷째, 남자 간호학생이나 남자간호사가 많아지면서 간호 직업군에 남자의 합류가 자연스러워지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남자는 간호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관념이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난 원래 말수가 적은 데다 여학생들과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더 힘든 거 같아요. 학과 공부보다 그게 더 어려워요. 먼저 사람을 편하게 대하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23)

처음 실습을 나갈 때는 안전부절했는데 이제는 너무나 당연해졌어요. 그것 자체가 이미 많이 변한거지요.(참여자 14)

다른 사람들보다 같은 간호학과 여자 동기들이나 임상 실습 중 간호사 선생님들이 “남자가 뭐 하러 간호학과에

왔느냐?”라고 말할 때 더 당황하죠. 게다가 간호학과에 온 것을 한심하게 보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요. 남자도 간호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고, 무엇보다 간호문화 자체 내 성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게 우선이지요.(참여자 10)

6) 결과(consequence) - 성숙한 간호학생으로의 성장

본 연구에서 남자 간호학생들은 임상 실습 작용·상호작용 결과 ‘성숙한 간호학생으로의 성장’이 도출되었고 하위범주로 ‘소속감’, ‘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간호 정체성 구축’, ‘간호에 대한 자긍심 획득’, ‘간호전문가의 꿈’이라는 네 가지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첫째, ‘소속감’에는 ‘내 병동, 동료애, 필요한 존재’라는 관련 개념이 도출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처음 임상 실습 시작될 때는 튼다는 생각에 병동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피하고 싶고 너무 불편했는데 이제는 편해졌다고 하였고, 함께 실습하는 여자 간호학생뿐 아니라 병동 간호사들에게도 동료의식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특히, 처음 실습 시작할 때 마치 굴러온 돌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에서 이제는 자신이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처음엔 너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어 병동 들어가는 것도 겁이 나고 피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실습 나갈 때 별 부담감이 없어요.(참여자 17)

무엇이든 작은 것이라도 도와주었을 때 감동하는 대상을 통해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미래에 어떤 존재가 되고자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만나는 선배 간호사를 보게 되더라고요.(참여자 9)

둘째 ‘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간호 정체성 구축’의 하위범주는 ‘성 평등 간호관 획득, 자기 주장적 간호, 간호에 대한 소명감’의 세 가지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남자이면서 여성의 직업에 들어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동안의 생각이 임상 실습을 통해 바뀌었으며 스스로 당당해짐을 느꼈다. 또한, 간호사는 기본 술기뿐 아니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섬기고 돌보는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자 간호학생에 대한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 등에 연연하지 않고 남자여도 간호를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참여자 25)

모든 전문직이 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간호도 성을 초월한 전문직으로 거듭나는 데 일조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참여자 16)

간호사라는 직업이 더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직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의 작은 실수에도 환자의 생명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비장해지기도 해요.(참여자 22)

세 번째, ‘간호에 대한 자긍심 획득’으로 간호 대상자를 잘 돌보겠다는 책임감이 커졌다. 실습 중 모르는 것은 스스로 교과서를 찾아보며 스스로 간호 지식이 확장되었으며, 현장지도자를 부지런히 따라다니며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간호 실무 능력이 강화되었다.

중환자실을 실습할 때 환자 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사람이 살아 있는 것과 죽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의식이 없고 심장이 뛰지 않는 것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거 같아요. 이때부터 한 번 더 확인하는 자세를 배웠어요.(참여자 12)

네 번째, ‘간호전문가의 꿈’이란 남자 간호학생들은 그 동안 여성들이 구축해놓은 간호사라는 옷을 가져다 입은 것 같은 혼란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습을 통해 드디어 자신만의 옷을 입은 것 같다고 하였다. 실습하는 동안 끊임없이 간호현장에 서 있는 자신에 대해 갈등하고 고민하던 성찰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이제는 ‘간호에 대한 열정을 품은 사람, 간호에 비전을 가진 사람, 간호에 대한 전문직관을 가진 사람’으로 되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간호학과에 이미 많은 남학생이 들어와 있지만, 간호 교육체계는 여전히 여성 중심적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 임상 실습을 하며 이런 분위기가 병원 등 현장도 마찬가지임을 알게 되었기에 자신들이 새로운 간호역할모형을 구축하는 세대가 되리라 결심하였다.

실습 초반에는 학생 간호사 가운을 입고 병원을 나갈 때마다 위축되었어요. 남의 옷을 입고 나가는 기분이랄까요? 남자 간호학생 옷은 어쩐지 여성스러운 느낌이 많은 생각에... 하지만 실습을 하며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나만의 간호라고 할까요. 할 일이 많은 곳, 남자 간호사, 여자 간호사가 아닌 그냥 간호사말이죠.(참여자 11)

학교에서 수업할 때 교수님으로부터 소위 전문직이라

고 하는 모든 직업, 예를 들어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전문직에는 성에 대한 차이가 없다, 성이 파괴되었다 등의 말씀을 듣고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실습 내내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났어요. 모두들 간호를 전문직이라고 하면서도 간호 안에는 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간호에 들어온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간호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방향을 세울 수 있었어요.(참여자 14)

는 의

본 연구는 남자 간호학생들의 임상 실습 스트레스와 대처경험을 이해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연구결과 6개의 범주, 18개의 하위범주와 52개 관련 개념들이 도출되었다. 패러다임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중심현상은 ‘굴러온 돌’의 변화과정이었다.

간호학과 내 다수 여학생 틈바구니에 끼인 남학생들은 임상 실습 중 성에 대한 차별을 느끼고, 소수자로서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불평등한 기회 그리고 부당한 요구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는 여성의 일이라는 사회 통념으로 인해 남자가 간호대학을 다니는 것을 부정적이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대중에게 전반적으로 깔려 있으며, 지속해서 이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 분야가 매우 경직된 문화라고 말한 O'Lynn [4]의 견해와 일치한다. Meadus와 Twomey [2] 역시 남자 간호학생은 성 고정관념으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 되며 간호교육 커리큘럼에 의한 교육을 받는 동안 직면하고 있는 장벽, 즉,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거의 변화없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 여학생 중심적인 교과과정이 뿌리 깊어 여성 지배적인 학과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과도 일치한다.

남자 간호학생들은 ‘여성 중심 환경, 체력 고갈, 롤모델의 부족, 나이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트레스 쌓이는 임상 현장에 맥락적 조건이 도출되었다. 이는 간호가 여성의 직업이라는 인식이 대중의 마음 속에 깊숙이 박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남자 간호학생, 남자간호사에 대한 성 편견 장벽 문화를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어떤 장벽이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Park과 Yuny [10]는 남자 간호학생들이 임상 실습경험을 통해 간호사가 되기에는 남성이라는 성 자체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정체감 혼란을 경험하며 간호사, 환자, 보호자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상처와 불안감의 경험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 중심의 전문직에 들어 온 남성들이

‘선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직업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치부한다고 말했던 Mackintosh [14]의 연구결과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Lupton [15] 역시 남자 간호학생은 소수자가 겪는 다양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소수자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15%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기준이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소수자의 결정기준이 구성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차별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단지 남자 간호학생이나 남자간호사의 수가 많아지면 이러한 차별과 편견이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많은 남자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 진입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남자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고 간호는 여전히 여성의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16].

남자 간호학생들은 여학생들 틈에 자신들이 ‘굴러온 돌’이라고 여겼고, 임상 실습현장에서 자리매김을 위해 ‘디딤돌 되기, 걸림돌 되지 않기, 굳건히 박힌 돌 되기’라는 대처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 중재적 조건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갈등을 많이 겪었다. 임상 실습에서 지식 부족이나 이론과 현실과 괴리 등으로 압박감을 느꼈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자신을 유치원생 같으며 심리적 갈등을 느꼈다. 또한, 학생 신분으로 인한 모호한 역할로 인해 자신이 업무에 방해가 되는 돌부리 같은 느낌 혹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마네킹 같은 존재로 인식하였으며 간호직원이나 환자 등과의 미숙한 대인관계 형성 능력에 한계를 느꼈고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단순하고 기능적인 간호업무의 반복으로 마치 활력 측정 기계가 된 것 같다고 느끼는 등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임상 실습 현장에서 남자 간호학생들은 낮은 환경이 부담스럽고 막막하며, 이론과 실제의 차이로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는 등 스트레스를 경험하고[17], 자신이 수행해야 할 명확한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방해가 되는 존재로 느끼는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다는 것[5,18], 그리고 간호 제공자로서 대상자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때 종종 좌절감과 낙망을 경험하게 된다[19]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 현상은 개인의 성향, 남자 간호학생에 대한 태도, 간호에 대한 비전, 성 평등 간호문화라는 중재적 조건에 의해서 개인마다 자신만의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란 개인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내적, 외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거나 무효화시킬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인지적, 행동적 노력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는 대상자가

갖는 인식과 태도에 많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대상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고, 대처방법도 달라진다[20]. 본 연구에서 남자 간호학생들은 자신들이 당면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자율학습에 열중하기, 기본 간호기술 증진하기, 임상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치료적 자기 사용하기 등을 사용하였다. 간호직원을 포함한 주변인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전심전력하여 최선을 다하고,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아서 솔선수범하였으며 눈치 빠르게 행동하고 지도자의 시범을 잘 숙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적극적 대처는 임상 실습 중 현재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찾고, 대안적 해결책을 만들며 이득(pros)과 부담(cons)의 관점에서 대안들을 저울질해보고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 행동하는 문제 중심 대처 양상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 실습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살펴본 결과, 정서 중심 대처에 비해 문제 중심 대처를 보였다는 Park과 Jang [2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 ‘굳건히 박힌 돌 되기’의 관련 개념은 ‘자신에게 충실하기, 남자 간호학생들끼리 정보 교류하기, 즐거운 활동으로 이완하기, 진정한 관계 형성하기’와 같이 스트레스에 의한 정서적 상태를 통제하려는 정서 중심 대처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 중심 대처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회피하거나 긍정적 측면만을 선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대처방법으로 회피, 최소화, 거리 두기, 선택적 주의, 긍정적 비교, 부정적 사건에서 긍정적 가치를 찾아내기 전략 등이 있다[22].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남자 간호학생들은 호주 간호학생들의 스트레스 지각 수준, 대처, 자존감에 대한 종단연구의 결과[23]와 유사하게 학생들은 문제 중심 대처와 정서 중심 대처를 모두 사용하였다. 향후 남자 간호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은 실제 변화 가능한, 통제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문제 중심 대처 사용이 정서 중심 대처보다 더 적응적이라고 할 수 있고, 변화하기 어렵고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는 정서 중심 대처의 사용이 문제 중심적 대처보다 적응적이라는 것이다[24].

본 연구에 참여한 남자 간호학생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반응 역시 위협적이거나 도전적이지만 직접 수정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문제 중심 대처를 많이 사용하고, 자신이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평가할 때는 정서 중심 대처를 사용하는 것으로 임상 실습으로 인한 다양한 스트레스에 매우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 간호학생들은 임상 실습을 통해 그동안 여성들이 구축해놓은 여성 중심적 간호사라는 옷을 벗고, 성을 초월한 자신만의 간호사

옷을 입은 것 같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남자 간호학생들이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는 과정에 임상 실습의 내용과 과정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시사해 주는 것이고 동시에 남자 간호학생들에게 적합한 임상 실습 모델 개발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남자 간호학생의 임상 실습 경험이라는 요인은 공통적이나 ‘3학년과 4학년의 경험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점’, ‘군복무를 하지 않은 학생과 군 제대 후 복학한 학생을 구별하지 않은 점’, ‘연구참여자가 모두 1개 지역의 5개 대학재 학생으로 편의의 추출되었다는 점’ 등으로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일부 대학의 남자 간호학생의 경험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지역적 실습환경의 편차가 심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실습기관의 특성(규모, 지역 등)이나 실습 분야에 따른 임상 실습 대처 경험의 차이에 관한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는 남학생 자조 그룹 활성화를 통한 임상 실습 대처 과정이나 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방법인 문제 중심 대처, 정서 중심 대처에 따른 효과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한 심층적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임상 실습의 경험시점을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끌어낼 수 있었고, 군대라는 요인에 영향 받지 않고 모든 남자 간호학생들의 경험을 망라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 이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자 간호학생들의 임상 실습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의 경험을 반추하고 성찰해 볼 기회를 가졌다는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

이상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남자 간호학생들이 계속 간호대학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들이 간호 전문직 내로 진입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소수자가 아닌 당당히 전문직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미래 간호발전과 위상에 기여하는 간호 새내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임상 실습 중의 다양한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도록 훈련하고 ‘자리매김하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기’를 지원하며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남자 간호학생들의 성문화를 초월한 변화가 지속되고, 이것이 전체 간호문화로 전파하기 위해서는[24] 첫째, 간호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의 관점이 바뀌어야 하고 둘째, 성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다각적인 시도와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셋째, 성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성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대중 인식 개선, 성(gender) 중립적 언어 사용, 간호 직원의 남성 비율 증진, 여성 중심 교육 과정을 양성 평등하게 조정하기 등을 제언한다.

결론

본 연구는 남자 간호학생들이 임상 실습이라는 교육 과정을 통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대처에 대해 근거이론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심층 탐색하고자 시행되었다. 자료분석 결과 6개의 범주, 18개의 하위범주, 52개의 관련 개념들이 도출되었으며 경험의 중심현상은 ‘굴러온 돌’로 나타났다. 남자 간호학생은 임상 실습현장에서 ‘굴러온 돌’처럼 자신을 지각하였고 ‘디딤돌 되기, 걸림돌 되지 않기, 굳건히 박힌 돌 되기’라는 세 범주의 대처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일련의 작용·상호작용 전략들이 모두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 간호 실무 자신감을 획득하고 성(gender)으로부터 자유로운 간호정체성을 구축하였으며 간호전문가의 꿈을 품고 드디어 간호 안에 ‘박힌 돌’이라는 목표를 성취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성을 간호학생으로 성장해 갔다. 결론적으로 남자 간호학생들이 간호학과의 임상 실습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자신을 곧 ‘굴러온 돌’이라 지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전문직에 꼭 필요한 고급인력들이 간호를 떠나지 않고 ‘굳건히 박힌 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남자 간호학생들의 경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문제 중심 대처와 정서 중심 대처를 고려한 실제적 임상 실습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s of interest.

ORCID

Ju, Sejin	https://orcid.org/0000-0002-3925-4273
Choi, Jung Hyun	https://orcid.org/0000-0002-9892-5022
Kim, Chunmi	https://orcid.org/0000-0001-6479-9956
Oh, Doo Nam	https://orcid.org/0000-0001-5424-6020
Park, Myung Sook	https://orcid.org/0000-0003-1708-2789

REFERENCES

- Halstead JA, Rains JW, Boland DL, May FE. Reconceptualizing baccalaureate nursing education: outcomes and competencies for practice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1996;35(9):413-416.
- Meadus RJ, Twomey JC. Men student nurses: the nursing education experience. *Nursing Forum*. 2011;46(4):269-279. <https://doi.org/10.1111/j.1744-6198.2011.00239.x>
- Son HM. Analysis of positioning in the nursing students' narrative of the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4;20(1):129-137.
- O'Lynn CH. Gender-based for male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programs: prevalence and perceived importan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004;43(5):229-236.
- Chung KS. Nurse national examination men passed 2,000 people.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Internet]. 2017 February 16 [cited 2017 September 01]; Available from: http://www.nursenews.co.kr/ebook_file/1911-1-1.pdf
- Kim JS, Sun JJ, Kim H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2009;10(1):63-76.
- Evans J. Men nurses: a historical and feminist perspectiv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4;47(3):321-328.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4.03096.x>
- Fooladi MM. Gender influence on nursing education and practice at Aga Khan university school of nursing in Karachi, Pakistan. *Nurse Education in Practice*. 2008;8(4):231-238. <https://doi.org/10.1016/j.nepr.2007.09.002>
- Chan ZC, Lui CW, Cheung KL, Hung KK, Yu KH, Kei SH. Voices from a minority: experiences of Chinese male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American Journal of Men's Health*. 2013;7(4):295-305. <https://doi.org/10.1177/1557988312473502>
- Park C, Yuny S. Nursing students clinical experienc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7;7(7):325-335. <https://doi.org/10.14257/ajmahs.2017.07.19>
- Chenitz WC, Swanson JM. From practice to grounded theory: qualitative research in nursing. 1st ed. Menlo Park, CA: Addison-Wesley; 1986. 271 p.
- Eswi A, El Sayed Y. The experience of Egyptian male student nurses during attending maternity nursing clinical course. *Nurse Education in Practice*. 2011;11(2):93-98. <https://doi.org/10.1016/j.nepr.2010.11.012>
- Corbin J, Strauss A.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3rd ed.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Inc.; 2008. 456 p.
- Mackintosh C. A historical study of men in nurs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97;26(2):232-236. <https://doi.org/10.1046/j.1365-2648.1997.1997026232.x>
- Lupton B. Maintaining masculinity: men who do 'women's work'.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2000;11(1):33-48. <https://doi.org/10.1111/1467-8551.11.s1.4>
- Popper-Giveon A, Keshet Y, Liberman I. Increasing gender and ethnic diversity in the health care workforce: the case of Arab male nurse in Israel. *Nursing Outlook*. 2015;63(6):680-690. <https://doi.org/10.1016/j.outlook.2015.08.001>
- Choi SJ, Park KM. An initial clinical experience of male nursing students. *Kemyung Society of Nursing Science*. 2001;5(1):129-

- 139.
18. Streubert HJ. Male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clinical experience. *Nurse Educator*. 1994;19(5):29-32.
19. Sherwood S. Encyclopedia of trauma and traumatic stress disorders. *Journal of Mental Health*. 2010;19(6):562.
<https://doi.org/10.3109/09638237.2010.520370>
20. Freudenberger HJ. The issues of staff burnout in therapeutic communities. *Journal of Psychoactive Drugs*. 1986;18(3):247-251.
<https://doi.org/10.1080/02791072.1986.10472354>
21. Park HJ, Jang IS.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0;16(1):14-23.
22. Lazarus RS,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First ed. New York,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84. 456 p.
23. Lo R. A longitudinal study of perceived level of stress, coping and self-esteem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an Australian case stud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2;39(2):119-126.
24. Lee CS, Kim YJ. Moderated effects of coping strategies of stress: based on gender differences of university students. *Studies on Korea Youth*. 2004;15(2):183-213.